가구·건자재업계 봄 바람 솔솔… 고객잡기 '기지개'

에이스 침대 소비자 접점 확대
강원 강릉에 '에이스 스퀘어' 오픈

시몬스 매트리스 프레임 신제품
최상위 컬렉션으로 E0급 자재 적용

디비케이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팝업 스토어 운영…체험·할인 혜택

한화L&C 중소형토털패키지 선봬
홈쇼핑서 구매하면 옵션 업그레이드

에이스 스퀘어 강릉점 외부 전경.

한화L&C가 GS홈쇼핑을 통해 선보일 인테리어 패키지.

겨울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가구·건자재 기업들의 새 봄 맞이가 한창이다.

신제품 출시, 매장 확장, 마케팅 강화,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 마음 잡기에 본격 나선 것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린 강원도 강릉에 '에이스 스퀘어(ACE SQUARE)'를 최근 오픈했다.

에이스 스퀘어는 에이스침대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매장으로 강릉점은 울산점, 수원점, 중곡점, 좌천점, 목동점, 동탄점, 송현점, 의왕평촌점에 이어 9번째다.

강릉점은 연면적 약 479㎡(약 145평)의 규모로 에이스침대의 대표 모델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에코르네스사의 명품 리클라이너 '스트레스리스'를 만날 수 있어 숙면과 휴식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했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에이스 스퀘어 강릉점은 강원도 지역에 오픈 하는 첫 번째 스퀘어 매장으로 지역 내 신규 소비자와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가구 매장들이 소형화, 노후화된 강릉 지역에 대형 단독 매장으로 운영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강릉의 새로운 가구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몬스는 최상위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블랙' 매트리스 전용 신규 프레임 3종을 새로 내놓았다.

시몬스 침대의 신제품 프레임 'C1'은 별도로 구입 가능한 확장 패널을 더해 호텔 스위트룸의 월 데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헤드보드가 특징. 패브릭에 천연 가죽 스티치 디자인을 적용한 유니크한 모델로 '다스베이지'와 '그라파이트' 2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추럴한 소재와 심플한 디자인의 'C3' 프레임, 넓은 헤드보드의 웅장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연출한 'C5' 프레임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시몬스 침대는 뷰티레스트 블랙 전용 프레임뿐만 아니라 프레임 모든 제품에 E0급의 안전한 자재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정한 환경기준인 E1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디비케이는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3층에 위치한 하이마트 월드타워점에 팝업스토어를 오픈, 이달 15일까지 운영한다.

고객들이 행사 기간 중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면 신제품 듀오백온을 통해 바른자세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디비케이가 올해 초 출시한 듀오백온은 의자 좌판에 필름형 압력분포 센서를 장착해 사용자가 앉으면 체중과 움직을 감지해 앉은 자세를 총 6가지로 형태로 구분해 앉은 시간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 듀오백온과 연결된 스마트폰의 앱으로 전송해 실시간으로 자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에선 리마와 Q7도 같이 선보여 2018년 듀오백의 모든 신제품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체험하며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화L&C는 오는 6일 밤 GS홈쇼핑을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바닥재&벽지+창호+주방가구' 토털 패키지를 선보인다.

중소형 평형대 주택 거주자를 겨냥한 이번 방송에선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창호 굿에어 패키지와 신개념 마루바닥재 마루앤(&) 신제품,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벽지 Q'pid(큐피트)와 Q'ube(큐브), 주방가구 Q'cine(큐치네) 등 4종을 선보인다.

특히 방송 중 예약하는 소비자들은 고급 벽마감재(걸레받이), 유해먼지 저감 방진방충망, 가로형3구 하이브리드 쿡탑, 소형 가전 인출장 '쿠킹 갤러리' 등 다양한 옵션을 업그레이드해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검은사막 M' 흥행몰이… 양대 마켓서 1위

펄어비스 5시간 만에 100만 다운로드

펄어비스의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 '검은사막 모바일'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1일 기준, 인기 1위를 기록하며 양대 마켓 인기차트 1위를 달성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출시 5시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기도 했다. 출시 직후 점검 상황에 대해 진행 상황을 공지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등 유저 친화적인 운영으로 공식 카페 누적 회원수도 50만 명을 넘어섰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원작 PC 온라인 '검은사막'의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다. 역대 국내 게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인 사전예약수 500만 명 이상을 모객했다.

모바일 버전 인기와 함께 원작도 올 초 최고 동접을 다시 돌파하며 인기 몰이 중이다. 온라인 버전은 북미,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150여개국, 12종의 언어로 서비스돼 850만 명이 넘는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검은사막 모바일 공식 카페에서는 누적 회원 5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인게임 캐릭터인 흑정령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대유그룹 "대우전자 인수 완료… 경영 정상화"

국내 3위 종합가전기업 목표
양사간 협업 등 시너지 기대

대유그룹은 지난달 28일 DB그룹과 재무적 투자자(FI)들의 지분 인수를 완료하며 대우전자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대유그룹은 주요 계열사에 의해 설립된 투자목적회사SPC가 대우전자 지분 84.5%를 인수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우전자로 사명 변경을 포함한 정관 변경을 승인하고 안중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선임했다. 본점 소재지도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559로 변경했다.

구주인수 및 대우전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자금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대유그룹은 제이에스자산운용과 스마트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780억원이며 이행보증금 100억원은 계약금으로 전환됐다.

대유그룹은 앞으로 대유위니아와 대우전자의 시너지를 통해 국내 3위 종합가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사 간 제품 라인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갖추고 대우전자의 해외 유통망과 대유위니아의 국내 유통 및 물류 인프라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대유그룹 관계자는 "양사는 앞으로 제품공동개발 원부자재 통합구매와 같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흑자전환을 이루고 국내 3위 종합가전기로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조속히 대우전자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인터넷 포털, 사전 규제보단 사후 관리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토크콘서트

인터넷 포털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사전 규제를 시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후규제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스마트폰 산업처럼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규제가 답인가?'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세대 이상우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토론에는 호서대 류민호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동국대 이경원 교수,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인터넷 포털 시장의 정의와 시장 획정에 대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인터넷 포털의 정의와 시장 획정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는 "한국에서는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를 포털이라고 하지만 이건 포털의 한 종류일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뉴스, 날씨, 주식, 스포츠 같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버티컬 포털도 있다. 이런 사이트를 고려하지 않고 포털을 정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민호 교수는 "공정위에서 포털 서비스를 '검색,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 규정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포털 서비스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경쟁자 입장에서의 규제 주장은 있지만, 소비자 후생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나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윤혁 교수는 "네이버 쇼핑윈도는 다른 온라인쇼핑몰이 제공하지 않던 오프라인 기반의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입을 제공했다"면서 "만약 네이버 쇼핑의 지배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검색 지배력 전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온라인 채널이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제공한 경쟁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 규제가 답인가?'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박민수 교수는 "사전 규제는 방송산업, 통신산업, 전력, 철도처럼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에 적용한다"면서 "반면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1, 2위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산업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1위 자리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사전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만 사전 규제를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원 교수는 "해외 기업들도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사전 규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